

Morning Meeting Notes

2026-09-17

내일의 차이
현대차증권

What's Inside

현대모비스(BUY/690,000원) - '26 R&D Tech Day: C to NC
[경제] 9월 FOMC - 인플레이션 파이터 모드로 급격한 전환

주식시장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 FOMC를 앞둔 고유가, 고금리 경계심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전력인프라 강세가 지수 상승 주도. 광통신, 무선통신주도 크게 상승. 반면 원전, 건설, 소프트웨어, 보험, 증권, 에너지, 2차전지, 조선, 여행·항공, 로봇, 음식료 등 다수 업종 약세. 코스닥은 반도체장비만 강세였으나, 이외 대형 종목들 대체로 하락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 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고 점도표에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긴축 우려 확대된 영향. 금리에 민감한 전통 산업주, 금융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으며, 에너지 업종도 하락. 반면 양호한 실적 기대를 바탕으로 반도체주는 상대적으로 강세. 특징적으로는 인텔이 SK하이닉스와의 반도체 투자 소식에 +4.03% 상승

금리&환율

국고채 금리는 하락 마감. 이날 FOMC 경계감에도 불구하고 외인 3년 국채선물 대거 순매수 및 일부 저가매수세 유입에 영향 받아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하락 압력을 받음
미국채 금리는 혼조 마감. 연준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연준 의장의 추가 긴축 시사 발언이 겹치면서 단기물 금리 중심으로 상승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9.20원 오른 1,368.60원에 마감. FOMC 경계감 속 원/달러는 높은 국제유가와 미국채 금리로 인해 상승하였으나, 차익 실현성 매물과 수출업체 네고 물량에 영향 받아 상승폭 일부 축소
달러인덱스는 100.26으로 상승. FOMC에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워시 의장도 매파적 기조를 시사하면서 달러는 강세

주요 뉴스

미 연준 기준금리 25bp 인상
연준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3.75%에서 연 3.75~4.00%로 25bp 인상을 결정. 또한 FOMC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연 4.1%로 예상하며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시사

New Publications

[증권] Keep Calm and Carry On(2026-09-11)
[인터넷/SW] SW/서비스의 겨울, AI인프라/네오클라우드의 봄(2026-09-02)
[자동차/반도체소부장/로보틱스] 중국 WRC 2026 방문 후기 및 투자 활용법 - 이제 그만 출초고 일할 시간(2026-08-26)
[미국주식] Data Center Asia 2026 참가기 - 800VDC, 전력의 대전환(2026-08-11)
[채권/크레딧] Fixed Income Monthly - 수요측 물가압력 다각도로 점검 결과 = 동결(2026-08-07)
[선진국 전략] 미국 장단기 전략 - 1Q27 S&P 500 Target 9,000pt(2026-07-03)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일본 기업 방문 후기 - Bottleneck 해소에는 시간 필요(2026-06-24)
[반도체/전기전자/디스플레이/AI/로보틱스] 대만 Computex 방문 후기 - Agentic AI가 AX 견인(2026-06-10)
[경제] 2026년 하반기 경제 전망: 기호지세(騎虎之勢) - Ride With Us or Collide With Us(2026-06-02)
[주식전략] 2026년 하반기 주식전략 전망: AI 압축 포트폴리오로 돌파하라(2026-05-29)
[전기전자/디스플레이](OVERWEIGHT) 2026년 전기전자/디스플레이 하반기 전망 - 아직 Peak는 오지

Rating, Target Price Changes

롯데칠성	BUY	170,000 원	▷ BUY	140,000 원	(2026-09-14)
삼성증권	신규		▷ BUY	146,000 원	(2026-09-11)
한국금융지주	신규		▷ BUY	312,000 원	(2026-09-11)
키움증권	신규		▷ BUY	434,000 원	(2026-09-11)
미래에셋증권	신규		▷ BUY	42,000 원	(2026-09-11)
와이씨	BUY	19,000 원	▷ BUY	16,000 원	(2026-09-11)
CJ프레시웨이	BUY	41,000 원	▷ BUY	35,000 원	(2026-09-11)
클리오	BUY	14,000 원	▷ BUY	17,000 원	(2026-09-09)
유한양행	BUY	120,000 원	▷ BUY	110,000 원	(2026-09-08)
아이에스동서	BUY	31,000 원	▷ BUY	23,000 원	(2026-09-08)
한일시멘트	BUY	19,000 원	▷ BUY	20,000 원	(2026-09-07)
피에스케이홀딩스	BUY	175,000 원	▷ BUY	210,000 원	(2026-09-07)
대한제강	BUY	13,800 원	▷ BUY	11,900 원	(2026-09-04)
컴트로닉스	BUY	47,000 원	▷ BUY	34,000 원	(2026-09-04)
피엔에이치테크	M.PERFORM	4,400 원	▷ M.PERFORM	3,800 원	(2026-09-04)

외국인 순매수		국내기관 순매수	
순매수	금액(백만)	순매수	금액(백만)
삼성전기	111,413	삼성전자	418,016
대한광통신	68,779	SK하이닉스	377,201
TIGER 미국나스닥100	22,806	삼성전기	97,452
GS	20,018	KODEX 레버리지	87,898
TIGER 미국S&P500	19,563	KODEX 200	69,932

외국인 순매도		국내기관 순매도	
순매도	금액(백만)	순매도	금액(백만)
삼성전자	-476,654	TIGER 미국S&P500	-34,446
SK하이닉스	-448,849	KODEX 인버스	-32,702
두산에너지빌리티	-51,436	TIGER 미국나스닥100	-29,158
KB금융	-47,202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	-23,499
SK스퀘어	-42,993	TIGER 미국나스닥100타겟데일리커버드	-21,527

국내시장 동향	증가	D-1(%)	D-20(%)
KOSPI	6,717.97	+1.37	+3.81
대형주	7,334.51	+1.54	+4.01
중형주	4,079.42	-0.55	+1.89
소형주	2,385.97	-0.32	+1.62
KOSDAQ	815.98	+0.44	-1.03
투자자별 매매동향	개인	외국인	기관
KOSPI	(억원)	(억원)	(억원)
순매수	-12,061	-16,828	12,371
누적순매수(D-20)	-130,859	-179,923	12,149
거래대금(코스피+코스닥)	금액	D-1	D-20
(평균, 단위 : 억 원)	224,742	228,354	331,594
업종별 지수	증가	D-1(%)	D-20(%)
건설	170.34	-2.37	+5.42
금융	1,100.97	-0.31	+1.90
운수장비	4,599.73	-1.66	-11.21
유통	604.23	+1.01	+1.32
음식료	4,687.80	-0.85	-3.38
의약품	15,170.93	-0.36	-6.46
전기전자	108,899.10	+2.81	+7.75
철강금속	6,703.02	-0.97	-1.55
화학	4,666.60	-1.08	+0.08
유틸리티	991.96	-1.60	-0.30
통신	603.60	-0.31	-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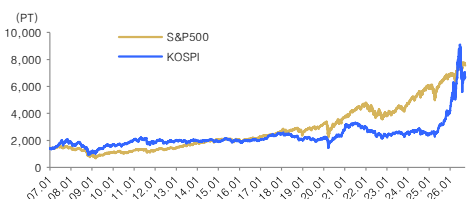
해외시장 동향	증가	D-1(%)	D-20(%)
S&P500	7,552.25	-0.44	-2.02
NASDAQ	25,978.43	-0.01	-1.34
일본	63,484.10	+0.00	-2.82
중국	3,891.60	+0.71	-0.07
독일	25,402.28	+0.00	-2.64

주요 금리 동향	증가	D-1(bp)	D-20(bp)
국고채 (3년)	4.05	-3.80	+25.50
국고채 (10년)	4.55	-5.30	+21.00
은행채AAA (3년)	4.38	-5.30	+27.00
미국국채 (2년)	4.74	+7.40	+57.45
미국국채 (10년)	5.02	+2.15	+37.70

환율 동향	증가	D-1(%)	D-20(%)
원/달러	1,368.60	+0.68	-2.08
원/백 엔	880.99	+0.12	+0.39
원/위안	204.15	+0.57	-1.02
달러/유로	1.15	-0.68	-1.82
위안/달러	6.71	+0.01	-0.26
엔/달러	156.24	+0.76	-1.21
Dollar Index	100.31	+0.70	+1.53

상품시장 동향	증가	D-1(%)	D-20(%)
WTI (usd/barrel)	102.43	-3.21	+19.34
금 (usd/oz)	4,332.80	+0.00	-4.68
BDI	3,327.00	-0.98	+18.19
천연가스(NYMEX)	2.89	-0.96	+2.74

KOSPI, S&P 추이



본 조차지표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현대모비스 (012330)

Analyst 장문수 joseph@hmsec.com

'26 R&D Tech Day: C to NC

BUY

TP 690,000원

현재주가 (9/16)	383,000원
상승여력	80.2%
시가총액	34,401십억원
발행주식수	89,821천주
자본금/액면가	491십억원/5,000원
52주 최고가/최저가	768,000원/288,000원
일평균 거래대금 (60일)	165십억원
외국인 지분율	38.11%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외8인	33.04%

주가상승률	1M	3M	6M
절대주가(%)	-30.0	-42.0	-4.5
상대주가(%)	-27.3	-24.6	-21.1

* K-IFRS 연결 기준

(단위: 원)	EPS(26F)	EPS(27F)	T/P
Before	46,610	56,273	690,000
After	46,610	56,273	690,000
Consensus	45,665	52,177	735,200
Cons. 차이	2.1%	7.9%	-6.1%

최근 12개월 주가수익률



자료: FnGuide, 현대차증권

2026 현대모비스 R&D 테크데이 개최

- 동사는 '26년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마북 기술연구소에서 '2026 R&D 테크데이'를 개최.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본 행사는 올해로 3회를 맞이, '모빌리티 부품에서 미래 로보틱스로의 확장'을 슬로건으로 전동화, SDV, 자율주행, 차세대 사시 및 안전 기술, 로보틱스 구동계 등 60여종 R&D 성과를 선보임. 기존 CES 등 개방된 형태의 기술 시연행사와 달리 본 행사는 현대모비스 연구개발 핵심 거점에서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을 초청해 기술 방향성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실질 계약까지 연결하는 사업 협력 플랫폼 성격의 행사

C에서 NC로 성장의 축이 확장, 그룹 성장 방향성에 편승하며 시너지 기대

- C to NC로 성장축 확장: 본 행사는 전략적으로 자동차 모듈 및 단순 하드웨어 제조 중심 전통(Conventional) 부품사에서 벗어나 통합 SDV 기반 모빌리티 플랫폼 및 로보틱스 기반 피지컬 AI 핵심 공급자(Non-Conventional)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며, 현대차/기아 등 기존 Captive 고객사 대응 목적의 부품 중심에서 글로벌 OEM을 목표로 한 Non-Captive 고객 확장의 의미. 또한 통상적 제조 부품(Components) 관점 접근에서 SDV 기반 반도체, 전장 및 로보틱스 기반 액츄에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New Contents) 발굴의 전략적 의미가 있다고 판단

- 그룹 전략적 성장 방향성에 편승 연계와 시너지를 주목: 최근 시장은 자동차 업종의 경영환경(환율, 수요, 경쟁) 악화 속 로보틱스/SDV/자율주행과 같은 성장 동력을 주목. Hyundai Way에서 강조한 파워트레인 다변화, 맞춤형 PBV 생태계 구축, 피지컬 AI(로보틱스, 자율주행)와 표준화된 SDV 아키텍처 기반 모빌리티 개념의 재정의에 편승할 연계점과 시너지를 주목. 동사 중장기 비전에서 확립된 비계열 매출 비중 확대와 핵심 기술 공급업체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의 방향성이 주가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판단

주가전망 및 Valuation

- 최근 미국 내 로보틱스 공급망 재편 요구 강화와 전략 산업 육성 기회 속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Robotics America 설립과 양산 대비, 보스턴 다이내믹스 Atlas의 RMAC 투입과 검증 등 전략적 움직임이 구체화 됨에 따라 동사의 전략적 경쟁 우위가 주목 받을 것으로 판단. 미국 내 전동화 기반 공급망을 바탕으로 로보틱스 사업 전환의 의지와 여건, 레퍼런스를 모두 갖춘 업체는 현지 공급망 재구축 요구에 수혜를 기대.

- 투자자의견 BUY, 목표주가 690,000원 유지

요약 실적 및 Valuation

구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BITDA (십억원)	EPS (원)	증감율 (%)	P/E (배)	P/B (배)	EV/EBITDA (배)	ROE (%)	배당수익률 (%)
2024	57,237	3,073	4,056	4,058	43,481	19.6	5.4	0.5	3.6	9.4	2.5
2025	61,118	3,357	3,656	4,525	39,683	-8.7	9.4	0.7	5.6	7.7	1.7
2026F	67,070	3,753	4,212	5,082	46,610	17.5	8.2	0.6	5.0	8.2	1.8
2027F	72,433	4,310	5,054	5,802	56,273	20.7	6.8	0.6	4.0	9.0	1.9
2028F	77,254	4,836	5,670	6,404	63,130	12.2	6.1	0.5	3.2	9.3	1.9

* K-IFRS 연결 기준

행사 주요 기술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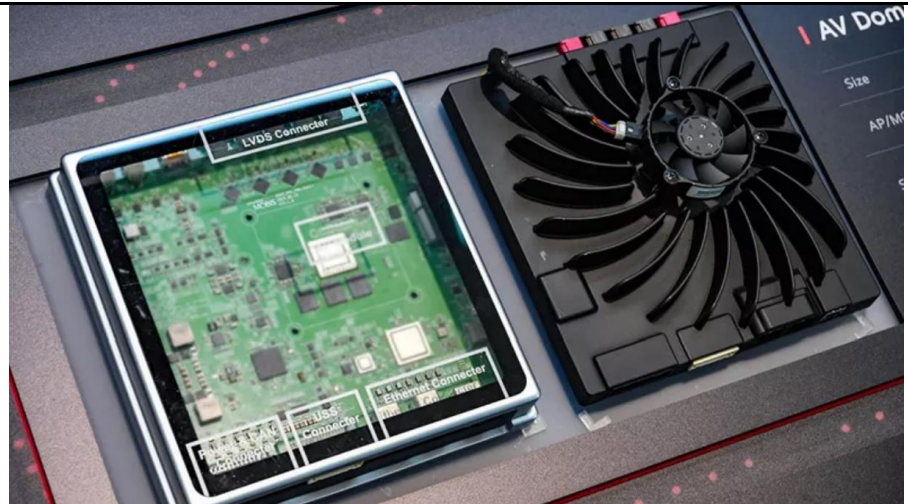
- **로보틱스 액추에이터:** 차세대 전동식 Atlas 장착 핵심 관절 액추에이터 2종 실물 공개. 고효율 영구자석 모터, 고감속/고정밀 기어, 인버터 및 소형 제어기 통합한 구동 유닛. 전동식 조향장치와 전기차 구동 모터 양산 과정에서 축적한 기계 가공 능력과 방열 관리, 대량 양산 기술 적용. '26년 의왕 연구소 파일럿 생산 시작해 시제품 검증 완료 후, '28년 35만개/년 규모 양산 체계 복미 구축 계획
- **차세대 하이브리드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셀 수급 정책에 빠른 대응을 위해 설계된 플랫폼형 부품으로 기존 배터리팩이 특정 셀 규격에 종속되어 재설계시 비용이 증가한 한계를 극복해 다양한 타입 셀을 동일한 팩 하우징 내에 적용 가능한 기계/전기적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 냉각 방식 또한 수냉/공냉 등 선택 적용 가능해 열 유동 경로도 최적화
- **내화 복합소재:** 개별 배터리셀에 국소적 열폭주 발생 시 인접 셀로 열이 번지는 열 전이 현상을 물리적으로 차단하여 팩 전체 화재 확산을 지연 시키는 기술
- **전기차 구동모터 고효율 신공법:** 제한된 배터리 용량과 좁은 패키징 공간에서도 최고 출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효율 전동화 솔루션
- **주행/주차 통합 제어기:** 기존 전자제어 아키텍처에서 고속도로 주행 및 전방 충돌 방지를 관장하는 ADAS 주행제어기와 서라운드 뷰 및 초음파센서를 관장하는 주차제어기가 물리적으로 분산되었던 것과 달리 원거리 카메라, 레이더 등 근거리 센서를 단일 고성능 연산 장치로 융합해 복잡도를 낮추고 센서 퓨전 데이터를 실시간 통합처리하는 구조. 배선 중량 경감, 저속 주행 상태 주차모드 전환 했으며, 복합 주행 환경에서 충돌 방지, 반응속도 향상
- **4바퀴 독립 조향 시스템:** 4개 바퀴에 개별 액추에이터를 배치하여 조향각을 독립 제어, 저속에서 제자리 회전 및 대각선 크랩 주행 가능 및 고속에서 후륜/전륜 동일 위상 조향해 차선 변경시 차체 롤링 및 미끄러짐 차단 기술 시연
- **홀로그래픽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독일 광학기업 자이즈 및 테사, 생고뱅 등과 4각 연맹 형성해 개발 중인 기술. 전면 유리창 전체를 투명 디스플레이로 활용, 운전자석에서 주행 경로 및 계기판 정보 투사, 조수석에는 독립적인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표시하는 분리형 광학 설계 구현. 대시보드의 물리적 디스플레이 공간 제거 가능. 2029년 상용화 목표로 글로벌 수주 활동 전개

〈그림1〉 로봇틱스 액츄에이터



자료: 현대모비스, 언론, 현대차증권

〈그림2〉 주행-주차 통합 제어기



자료: 현대모비스, 언론, 현대차증권

〈표1〉 2026 MOBIS R&D Tech Day - Autonomous

기술명	주요 내용
MCAM 1.5L/H	Non-모빌아이 모비스 자체솔루션 기반 ADAS 전방카메라
주행/주차 통합제어기 및 신기능	주행센서/주차센서 통합 인지 및 융합을 통한 자율주행/자율주차 기능의 상품성 증대
AI 기반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발	시뮬레이션 가상주행 환경/데이터로 학습·검증하는 AI 기반 자율주행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2〉 2026 MOBIS R&D Tech Day - SDV

기술명	주요 내용
하이브리드 사출 공법 적용 경량화 통합 제어기	알루미늄 대체 고성능 플라스틱 개발 및 하이브리드 사출 공법 적용 통합제어기 경량화 기술
5G 적용 BCU (Body & Connectivity Unit)	5G 모뎀 내장 프로세서 기반 SW 통합 아키텍처로 통합기술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 차세대 통합 제어기
온톨로지 데이터 기반 지능형 평가 프로세스 자동화 환경 개발	지식 그래프·LLM·롤셋 기반 평가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한 Continuous Test 환경 구축
대규모 데이터 기반 평가 환경 (HIL Farm)	대규모 자율주행 센서 데이터 수집, 관리 및 운영 가능한 데이터 기반 평가 체계 구축
CR (China Regulation) DCU (중국 5G DCU)	H/KIA 텔레매틱스 부문 최초 5G 모뎀 적용으로, 대용량 데이터 통신 가능 및 중국 eCall 법규 만족 제어기
MTCU GEN2.0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통합 무선 연결 플랫폼
Zonal Controller	CVC: Central Vehicle Controller, ZCU: Zone Control Unit
모비스 통합 SW 개발 환경	개발, 빌드, 검증을 웹 기반으로 통합해, 개발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클라우드 SW 개발 환경
10 BASE-T1S 이더넷 통신 기반 MCUless 엣지 제어 솔루션	이더넷으로 MCU 삭제된 엣지 부품을 원격 제어하는 차세대 전장 솔루션
10 BASE-T1S 이더넷 디바이스 반도체	Zonal 아키텍처향 10 BASE-T1S 기반 엣지 이더넷 통신 변환 반도체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3〉 2026 MOBIS R&D Tech Day - Safe & Sustainable

기술명	주요 내용
고속 주행 가능한 4륜 독립 조향 시스템	일반차량에 적용을 목적으로 고속 주행 가능한 고출력 수평타입 4륜 독립조향 시스템
듀얼 너클 대조향각 전륜 맥퍼슨 서스펜션 시스템	대형차도 소형차처럼 좁은 공간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회전 성능을 높인 차세대 서스펜션 시스템
'26 EuroNCAP 시뮬레이션 검증 프로세스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돌 방지 시스템 사전 검증 방법
BMS 이상 열화 진단 로직 기술 개발	배터리의 열화 인자 분석을 통한 이상 열화 진단 및 수명 추정 로직 기술
소화장치 적용 배터리 시스템	소화약제를 이용한 능동적 열폭주 대응 배터리 시스템 (파우치 셀 적용 배터리 시스템)
배터리 시스템 열연이 차단 소재 개발	고온 및 화염 저항성이 우수한 내화/단열소재 개발 통한 배터리 안전성 향상 기술
라운드형 착좌 전용 뒤보기 승객 후방 보호 에어백	정면 고속 충돌에서 역방향 좌석 승객을 보호하는 에어백
천연 섬유 강화 크래쉬패드 (EcoLite Crash Pad)	천연섬유와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차량 실내부품 기술
바이오소재 활용 친환경 부품 개발	바이오소재·천연섬유 적용 저탄소 경량 친환경 모빌리티 양산선행 기술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4〉 2026 MOBIS R&D Tech Day - xEV

기술명	주요 내용
연속 와인딩 고정자	기존 헤어핀 권선 대비 고정자 다운사이징 및 재료비 절감 가능한 연속 와인딩 개발
120kW 보급형 PE 시스템	원가절감 설계 기술과 패키지 높이 최소화 기술을 적용한 소형 EV 및 저장형 EV를 위한 PE 시스템
직접 구동 방식 인휠 시스템	구동 모터를 휠 내부에 적용하여 실내 공간 활용도 및 주행성능을 향상시키는 구동 시스템
SSC 6in1 SiC 파워모듈	xEV 인버터용 고집적 초소형 파워모듈 (SSC: Single Side Cooling)
고출력 성능확보 위한 구동모터 절연 & 열특성 향상 소재 개발	방열 특성 개선한 절연지 대체 고내열 필름 & 생산 공법 변경한 구동모터 코일 소재
48V 절연형 양방향 LDC	차량 고전압/저전압 간 배터리 전원 이용 양방향 직류전원 변환 공급이 가능한 고출력/고효율 컨버터
전력계통 임피던스 추정 기법 기술 개발	다양한 전력계통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EV 충전을 위한 임피던스 추정 기술
인버터向 게이트 드라이버 반도체 내재화 개발	친환경차 인버터용 저전압/고전압 간 전기적 절연 제어 및 진단/상태 신호 전달
HEV 인버터向 Si(실리콘) 전력반도체	HEV용 Si-IGBT 전력반도체
EV 인버터向 차세대 SiC 전력반도체	차세대 EV용 SiC MOSFET 전력반도체
CTV 배터리 시스템 (Cell To Vehicle)	차체-배터리 시스템 간 기능 통합을 이용한 CTV 배터리 시스템 구조
HEV 배터리 시스템 (셀 팩팩터 별)	셀 팩팩터 확장에 유연한 단일 플랫폼 기반 수냉(공냉) 배터리 시스템
전동화 차량의 배터리 모니터링 반도체 / 절연 통신 반도체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한 데이터 통신을 위한 핵심 반도체 기술
수소 연료전지 스택셀 모니터링 반도체	수소전기차 연료전지 스택의 상태를 관리하는 핵심 반도체 기술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5〉 2026 MOBIS R&D Tech Day - Lamp

기술명	주요 내용
DLED 적용 시그널 램프	고휘도 기능 및 균일 이미지 구현 Direct LED 모듈
Film 적용 히든 램프	필름 內 패턴 인쇄 후 렌즈 사출 시 동시에 사출하여 점등/비점등 이미지 차별화하고 원가 절감하는 기술
외장램프 적용 필름기술 (IML/IMD)	인쇄 필름을 프리포밍 후 인서트 사출하여 3차원 입체감/그라데이션 디자인을 구현하는 기술
MCL (D-Line) 적용 헤드램프	사출 기술로 제작 가능한 MCL 렌즈를 통해 디자인 자유도 향상 및 주야간 동일 점등 이미지 구현 (MLA 동등 성능)
보급형 HD Micro LED Headlamp 시스템	4,000 픽셀 Micro LED 모듈 및 SBL 통합 모듈 적용을 통한 보급형 고해상도 ADB 헤드램프
보급형 다이내믹 근거리 노면 조사 모듈 (3.5세대)	10만 픽셀 Micro LED를 적용한 근거리 노면 조사 모듈로, 차량 3m 이내 영역에 고해상도 노면 정보 표시 구현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6〉 2026 MOBIS R&D Tech Day - UX

기술명	주요 내용
차세대 통합 콕핏 6.0 (M.VICS 6.0)	실사용 시나리오 기반 모비스內 선행 기술 및 미래 신기술 융합 통합 콕핏 (ver. 2025년) / M.VICS: MOBIS Vision of Integrated Cockpit System
HWD (Holographic Windshield Display)	HOE(Holographic Optical Element)를 투명 스크린으로 활용한 프로젝션 방식의 투명 디스플레이
Slope AR HUD	원/근 거리 가상이미지 구현으로 입체적인 증강현실 경험을 제공하는 차세대 AR HUD
반사형 윈드실드 디스플레이 (Reflective Windshield Display)	윈드실드를 파노라믹하게 활용한 차세대 투명 디스플레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LCD Sun-Burn Free AR-HUD	대화면 AR-HUD에서 발생하는 태양광에 의한 LCD 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
DTS:X Panoramic Sound 기술	SW 기반 음향처리로 4채널 스피커만으로 입체음향을 구현한 신기술
4D eASD 기술 (electric Active Sound Design)	주행음과 시트 진동을 동시에 생성하여 운전자에게 청각 및 촉각 피드백을 제공하고 운전 물입감을 향상시키는 기술
스마트 캐빈용On-Device AI Agent 및 Application	차량 IVI용으로 최적화된 On-Device AI Agent 기술 및 관련 응용 사례 소개
상황 맞춤형 스마트 실내조명 서비스 제안을 위한 조명 시나리오 개발	스마트캐빈 AI용 복합 조명 시나리오 개발 및 VR 시뮬레이션을 통한 조명 시나리오 버추얼 검증
SAL용 LED 구동 통합 SiP (ID804)	국산화 추진 및 구조 변경을 통한 광효율(소모 전류 대비 광도) 향상 Smart LED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표7〉 2026 MOBIS R&D Tech Day - Robotics

기술명	주요 내용
액츄에이터	자동차 구동장치 개발을 통해 축적한 모터·감속기·제어 기술을 활용해 만든 로봇 관절용 액츄에이터

자료: 현대모비스, 현대차증권

(단위:십억원)					
포괄손익계산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매출액	57,237	61,118	67,070	72,433	77,254
증가율 (%)	-3.4	6.8	9.7	8.0	6.7
매출원가	49,174	52,288	57,504	61,925	65,849
매출원가율 (%)	85.9	85.6	85.7	85.5	85.2
매출총이익	8,063	8,830	9,565	10,508	11,405
매출이익률 (%)	14.1	14.4	14.3	14.5	14.8
증가율 (%)	19.2	9.5	8.3	9.9	8.5
판매관리비	4,989	5,472	5,812	6,198	6,570
판매비율 (%)	8.7	9.0	8.7	8.6	8.5
EBITDA	4,058	4,525	5,082	5,802	6,404
EBITDA 이익률 (%)	7.1	7.4	7.6	8.0	8.3
증가율 (%)	26.0	11.5	12.3	14.2	10.4
영업이익	3,073	3,357	3,753	4,310	4,836
영업이익률 (%)	5.4	5.5	5.6	6.0	6.3
증가율 (%)	33.9	9.2	11.8	14.8	12.2
영업외손익	404	358	202	464	526
금융수익	812	606	614	731	763
금융비용	486	355	385	352	328
기타영업외손익	78	107	-27	85	9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1,788	1,400	1,608	1,866	2,088
세전계속사업이익	5,264	5,115	5,563	6,640	7,449
세전계속사업이익률	9.2	8.4	8.3	9.2	9.6
증가율 (%)	18.4	-2.8	8.8	19.4	12.2
법인세비용	1,204	1,450	1,346	1,580	1,773
계속사업이익	4,060	3,665	4,217	5,060	5,676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4,060	3,665	4,217	5,060	5,676
당기순이익률 (%)	7.1	6.0	6.3	7.0	7.3
증가율 (%)	18.6	-9.7	15.1	20.0	12.2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4,056	3,656	4,212	5,054	5,670
비지배주주지분 순이익	5	9	5	5	6
기타포괄이익	1,858	364	1,390	0	0
총포괄이익	5,918	4,028	5,607	5,060	5,676

(단위:십억원)					
현금흐름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253	4,473	3,893	4,723	5,243
당기순이익	4,060	3,665	4,217	5,060	5,676
유형자산 상각비	903	1,065	1,204	1,354	1,418
무형자산 상각비	82	102	125	138	150
외환손익	15	-19	-50	0	0
운전자본의 감소(증가)	-822	-708	-635	37	87
기타	15	368	-968	-1,866	-2,088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4,589	-3,234	-1,803	-1,852	-1,60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2,225	-1,194	-1,464	-994	-737
유형자산의 감소	116	66	63	124	124
유형자산의 증가(CAPEX)	-2,204	-1,348	-977	-640	-640
기타	-276	-758	575	-342	-356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255	-1,205	-1,536	-905	-928
차입금의 증가(감소)	1,235	31	-743	-40	-40
사채의증가(감소)	0	-140	-133	-138	-153
자본의 증가	4	10	1	0	0
배당금	-406	-583	-579	-618	-662
기타	-1,088	-523	-82	-109	-73
기타현금흐름	300	100	295	0	0
현금의증가(감소)	-291	134	850	1,966	2,706
기초현금	5,079	4,788	4,922	5,772	7,738
기말현금	4,788	4,922	5,772	7,738	10,444

* K-IFRS 연결 기준

(단위:십억원)					
재무상태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유동자산	28,424	30,366	34,977	37,648	41,850
현금성자산	4,788	4,922	5,772	7,738	10,444
단기투자자산	2	2	2	2	2
매출채권	9,914	10,221	12,430	12,850	13,747
재고자산	6,763	6,862	8,215	8,492	9,085
기타유동자산	1,105	1,468	1,624	1,631	1,637
비유동자산	38,173	40,034	43,406	45,632	47,761
유형자산	12,003	12,347	12,398	11,560	10,658
무형자산	1,167	1,266	1,342	1,459	1,576
투자자산	23,438	24,789	27,826	30,685	33,510
기타비유동자산	1,565	1,632	1,840	1,928	2,017
기타금융업자산	0	0	0	0	0
자산총계	66,597	70,401	78,383	83,280	89,610
유동부채	12,745	13,058	16,016	16,393	17,354
단기차입금	648	796	1,359	1,359	1,359
매입채무	6,748	6,691	8,253	8,532	9,127
유동성장기부채	569	511	313	204	131
기타유동부채	4,780	5,060	6,091	6,298	6,737
비유동부채	7,733	8,130	8,541	8,620	8,975
사채	200	60	-73	-211	-363
장기차입금	1,728	1,759	1,016	976	936
장기금융부채	0	0	0	0	0
기타비유동부채	5,805	6,311	7,598	7,855	8,402
기타금융업부채	0	0	0	0	0
부채총계	20,479	21,188	24,557	25,012	26,329
지배주주지분	46,081	49,168	53,775	58,211	63,220
자본금	491	491	491	491	491
자본잉여금	1,367	1,377	1,378	1,378	1,378
자본조정 등	-616	-400	-771	-771	-771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928	2,474	3,724	3,724	3,724
이익잉여금	42,911	45,225	48,953	53,390	58,398
비지배주주지분	37	45	51	56	61
자본총계	46,118	49,213	53,826	58,267	63,281

(단위:원, 배, %)					
주요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2028F
EPS(당기순이익 기준)	43,530	39,781	46,670	56,329	63,193
EPS(지배순이익 기준)	43,481	39,683	46,610	56,273	63,130
BPS(자본총계 기준)	495,900	542,370	599,232	648,679	704,500
BPS(지배지분 기준)	495,499	541,872	598,667	648,059	703,816
DPS	6,000	6,500	7,000	7,500	7,500
P/E(당기순이익 기준)	5.4	9.4	8.2	6.8	6.1
P/E(지배순이익 기준)	5.4	9.4	8.2	6.8	6.1
P/B(자본총계 기준)	0.5	0.7	0.6	0.6	0.5
P/B(지배지분 기준)	0.5	0.7	0.6	0.6	0.5
EV/EBITDA(Reported)	3.6	5.6	5.0	4.0	3.2
배당수익률	2.5	1.7	1.8	1.9	1.9
성장성 (%)					
EPS(당기순이익 기준)	19.8	-8.6	17.3	20.7	12.2
EPS(지배순이익 기준)	19.6	-8.7	17.5	20.7	12.2
수익성 (%)					
ROE(당기순이익 기준)	9.4	7.7	8.2	9.0	9.3
ROE(지배순이익 기준)	9.4	7.7	8.2	9.0	9.3
ROA	6.5	5.4	5.7	6.3	6.6
안정성 (%)					
부채비율	44.4	43.1	45.6	42.9	41.6
순차입금비율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순현금
이자보상배율	23.8	19.0	18.4	22.4	28.3

9월 FOMC

인플레이션 파이터 모드로 급격한 전환

- 9월 FOMC 만장일치 25bp 인상, 경기 우려 완화·물가 경계 확대
- SEP 성장을 상향·실업을 하향, 물가 전망은 소폭 상향
- 점도표 연내 추가 인상 시사, 2027년까지 Higher for longer
- 워시, 강한 경기·더딘 물가 개선을 판단 변화 배경으로 제시
- 당사 연내 추가 1회 인상으로 전망 변경, 이후 매파적 동결 예상

9월 FOMC 회의, 25bp 인상 만장일치 결정, 경기 우려는 줄고 물가 경계는 확대됨에 따라 물가 안정에 무게

- FOMC는 만장일치로 정책금리를 기존 3.50~3.75%에서 3.75~4.00%로 25bp 인상했다. 7월 FOMC에서 인상을 주장했던 세 명의 위원뿐 아니라 동결을 선택했던 위원들까지 모두 인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위원회 내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크게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 경기 판단도 이전보다 강해졌다. 소비를 포함한 국내 수요가 견조하고 생산성과 자본투자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노동시장 역시 급격하게 냉각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봤다. 7월 성명문에서 강조했던 에너지 등 공급 측 충격에 대한 설명은 빠지고, 이번에는 2% 물가목표로 보다 신속하게 복귀(timelier return)할 필요성이 강조됐다.
- Warsh 의장의 설명도 같은 맥락이다. 에너지나 관세로 오른 가격 자체를 금리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가격 상승이 임금과 서비스 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인상은 경기 둔화를 감수한 긴축이라기보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한 만큼 물가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는 판단에 가깝다.

SEP는 '강한 성장 + 높은 금리'를 제시, 점도표는 올해 추가 인상 + Higher for longer 시사

- 9월 SEP에서 2026년 성장을 전망은 2.3%, 2027년은 2.4%로 각각 0.1%p 상향됐다. 실업률 전망은 두 해 모두 4.1%로 0.2%p씩 낮아졌다. 반면 2026년 PCE와 근원PCE 전망은 각각 3.7%, 3.4%로 소폭 높아졌다. 연준이 보는 미국 경제는 이전보다 명확해졌다. 성장과 고용은 예상보다 좋지만 물가는 아직 충분히 내려오지 않는 상황이다. 위원들의 경기와 고용, 물가에 대한 리스크 평가도 달라졌다.
- 금리전망 변화는 더 컸다. 올해 말 점도표(중앙값 기준)를 보면 18명(케빈 워시 제외) 가운데 12명이 4.125%, 4명이 4.375%, 2명만 현재 수준인 3.875%를 예상했다. 즉 **16명이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 이 중 4명은 두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내년 전망도 높은 수준이다. 8명이 4.375%, 6명이 4.125%를 제시했다. 전체 18명 가운데 14명이 내년 말에도 정책금리가 올해 한차례 더 추가 인상한 4.125% 이상에 머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8년에 1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현재 점도표만 놓고 보면 연준의 기본 경로는 대략 다음과 같다. **2026년 추가 인상 → 2027년 높은 금리 유지 → 2028년부터 완만한 인하 경로다.**
- 다만, 2027년과 2028년 점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연준이 SEP에서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RA 김백중 bjbj210@hmsec.com

제시한 단기금리 전망의 역사적 오차는 당해연도 약 $\pm 50\text{bp}$ 지만, 1년 뒤에는 $\pm 170\text{bp}$, 2년 뒤에는 $\pm 230\text{bp}$ 까지 커진다. 이를 현재 SEP에 단순 적용하면 2027년 4.1% 전망의 역사적 불확실성 범위는 대략 2.4~5.8%, 2028년 3.9%는 1.6~6.2%에 이른다. 따라서 올해 말 4.1%는 비교적 의미 있는 정책 신호로 볼 수 있지만, 2027년 4.1%와 2028년 3.9%는 성장과 실업률, 지정학적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한편 점도표 상황과 더불어 장기 정책금리 전망도 3.1%에서 3.2%로 소폭 높아졌다. 변화 폭은 크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예상하는 균형금리 수준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워시 기자회견: 7월 이후 판단이 달라진 3가지 이유 제시

- Warsh 의장은 7월 이후 판단이 달라진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예상보다 강했고, 인플레이션 추세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으며,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금융여건을 제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발언**이 눈에 띈다. 이번 인상을 긴축 영역으로 더 깊게 들어간 조치라기보다 **“완화의 일부를 제거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추가 인상 부담을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개별 CPI에 반응하기보다는 추세를 보겠다는 점도 반복해서 강조했다. 한두 차례 물가가 낮게 나온다고 곧바로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서비스 물가와 임금, 기대인플레이션까지 포함한 흐름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평가 및 전망: 연내 추가 1회 인상을 기본 전망으로 변경. 이후 매파적 동결 스탠스 이어갈

전망

- 9월 FOMC에서 주목할 부분은 25bp 인상 자체보다 **연준의 금리 경로가 전반적으로 위로 이동했다는 점**이다. 경제 전망이 좋아지면서 추가 긴축에 따른 부담은 이전보다 줄었다. 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는 그대로다. 실제로 성장률 하방 위험을 예상한 위원은 크게 줄었지만, 대부분의 위원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상방 위험을 높게 보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점도표 변화를 상당부분 설명한다. 더불어 장기금리 급등과 시장의 연준 신뢰도 시험도 9월 FOMC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매파적 면모를 더 강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소지가 있다.
- 9월 FOMC 이후 연내 한 차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당사도 연내 추가 1회 인상을 기존 전망으로 변경한다. 내년 역시 높은 금리 유지 또는 추가 인상에 대한 리스크가 반영되는 모습이다. 시장은 9월 FOMC 직후부터 내년까지 추가 3회 인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만 2027년 4.1%, 2028년 3.9%라는 숫자 자체에 아직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 시계가 길어질수록 점도표의 예측오차가 빠르게 커지기 때문이고, 강한 경기, 오르지 않는 실업률만큼 미국 경제의 내실이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취약 부문에 작용하는 압력은 높아질 것이고, 공급측 물가 충격이 수요측 물가압력으로의 전이되는 힘 역시 강하지 않다.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 고유가 지속과 공급차질 확대가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예단도 어렵다.
- 이번 회의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연준이 빠른 금리 정상화를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균형금리 수준도 조금씩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금리가 내려오더라도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늦게, 그리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보여준 회의로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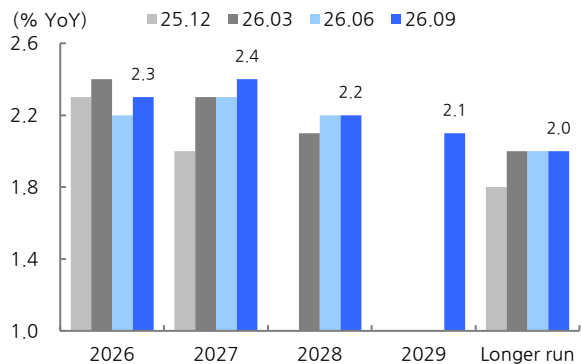
Key Chart

〈표 1〉 9월 FOMC 회의 경제전망요약(SEP)

구 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Longer run
실질 경제성장률	2.3	2.4	2.2	2.1	2.0
6월 전망	2.2	2.3	2.2	-	2.0
실업률	4.1	4.1	4.1	4.1	4.2
6월 전망	4.3	4.3	4.2	-	4.2
PCE 인플레이션	3.7	2.3	2.1	2.0	2.0
6월 전망	3.6	2.3	2.0	-	2.0
근원 PCE 인플레이션	3.4	2.5	2.2	2.0	-
6월 전망	3.3	2.5	2.1	-	-
목표 연방기금금리	4.1	4.1	3.9	3.6	3.2
6월 전망	3.8	3.6	3.4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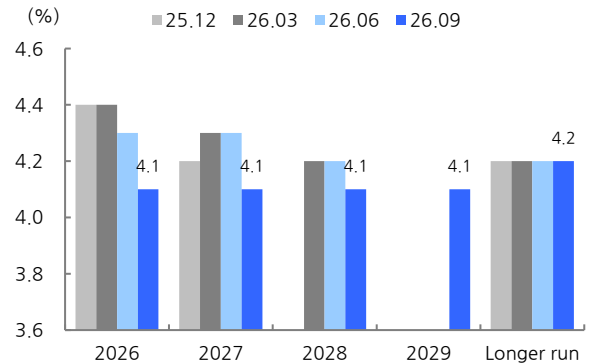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1〉 경제성장률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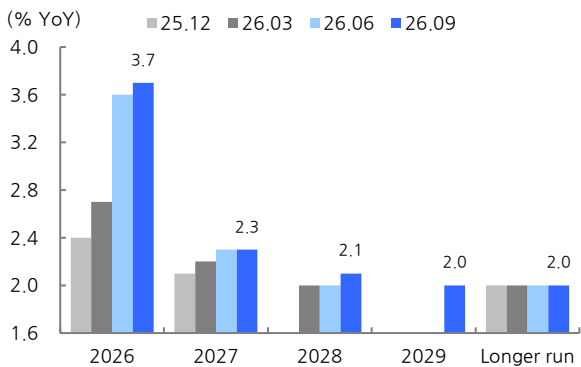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2〉 실업률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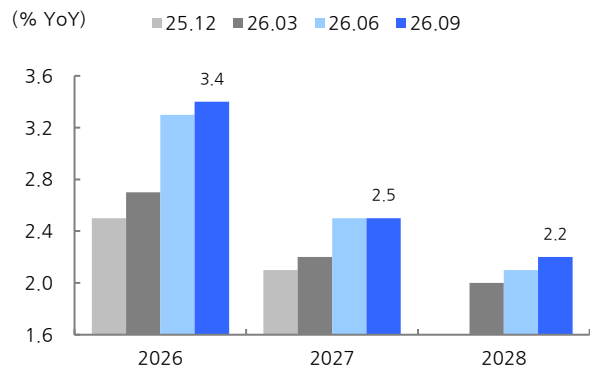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3〉 PCE 물가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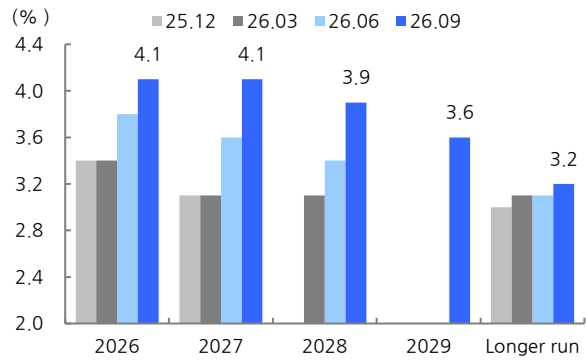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4〉 근원 PCE 물가 전망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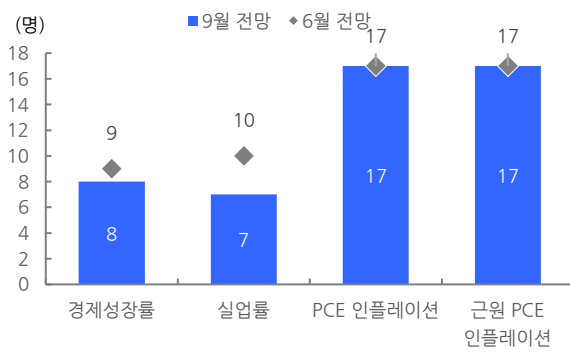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5〉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 중앙값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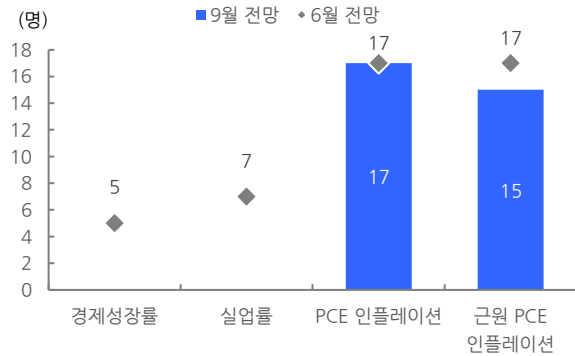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6〉 위원 중 불확실성 상승을 전망한 인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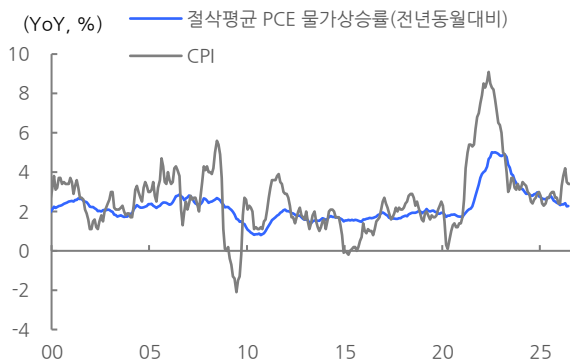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7〉 위원 중 리스크 악화를 전망한 인원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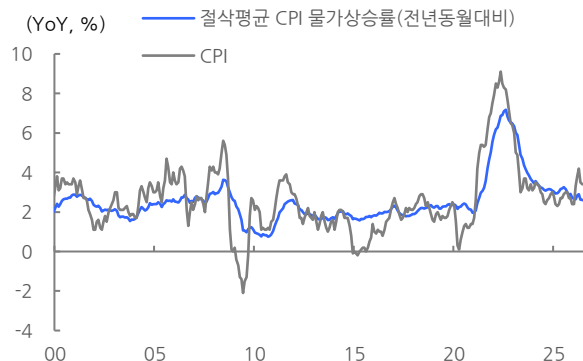
자료: Fed, 현대차증권

〈그림 8〉 Trimmed Mean PCE와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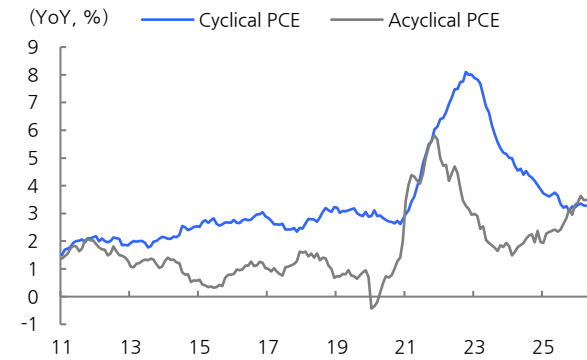
주: 절삭평균 PCE는 상위 31%, 하위 24% 제거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9〉 Trimmed Mean CPI와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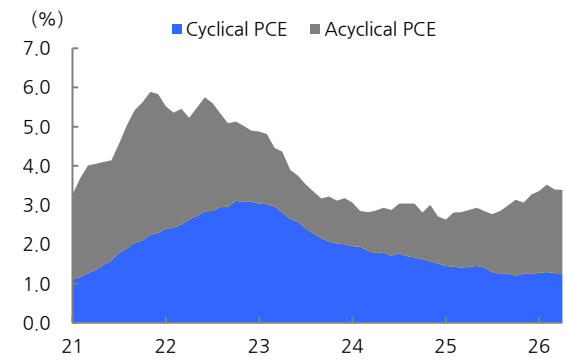
주: 절삭평균 CPI: 상위 8%, 하위 8% 제거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0> Cyclical PCE, Acyclical PCE %YoY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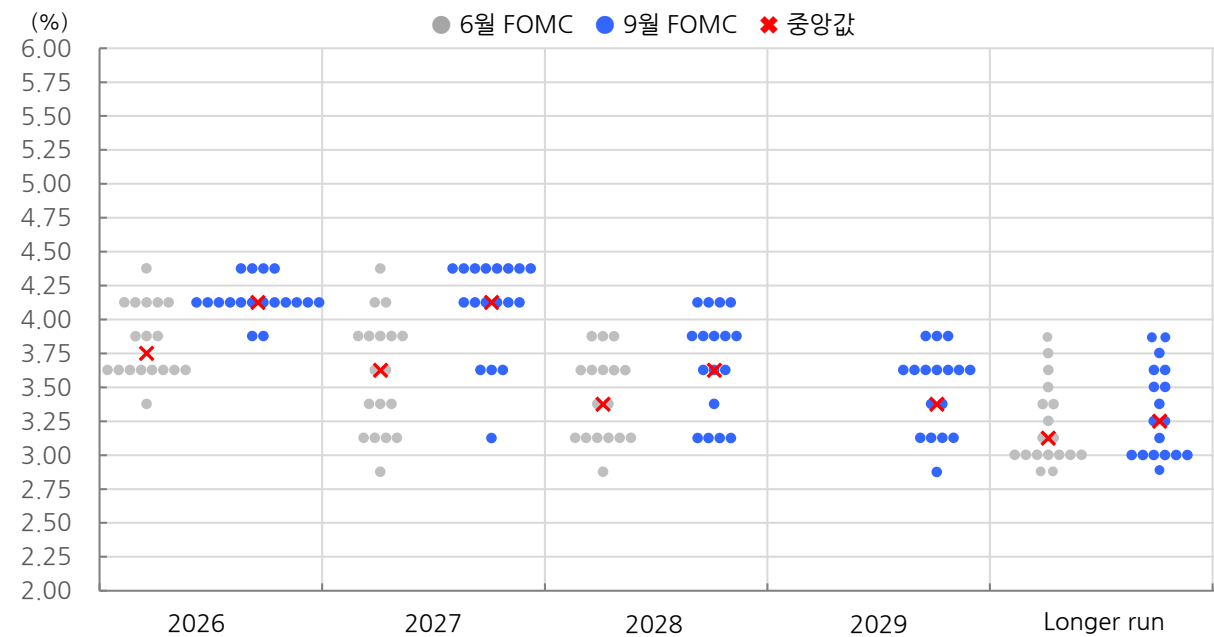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1> Cyclical PCE, Acyclical PCE 기여도 추이



자료: FRED, 현대차증권

<그림 12> 2026년 6월, 2026년 9월 FOMC 회의 연방기금금리 점도표 및 중앙값 변화



자료: Fed, 현대차증권

FOMC 성명문 변경사항

〈표 2〉 2026년 9월 FOMC 성명문

구 분	전문번역
7월 FOMC 성명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 성명서를 9대3 투표로 발표하기로 의결함: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책무를 지원하기 위함임.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 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중동 분쟁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높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생산성 증가와 자본 투자는 강세를 보이고 있음. 고용 증가는 노동력 증가 속도에 발맞춰 왔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음 인플레이션은 위원회의 2% 목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공급 충격을 반영함.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임 베스 해맥(Beth M. Hammack), 닐 카시카리(Neel Kashkari), 로리 로건(Lorie K. Logan) 위원이 반대표를 행사하였으며, 이들은 이번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p 인상하는 것을 선호하였음
9월 FOMC 성명문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다음 성명서를 12대0 투표로 발표하기로 의결함: 위원회는 연방기금금리 목표 범위를 0.25%p 인상하여 3.75%~4.00%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의 이중책무를 지원하기 위함임. 위원회는 은행 시스템 내 충분한 준비금을 유지하는 정책을 지속하고 있음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 지정학적 상황에 부분적으로 기인하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내수 소비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생산성 증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본투자는 견조한(robust)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 고용 증가는 노동력 증가 속도에 발맞춰 왔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의 보다 신속한 복귀를 지지할 것임. 위원회는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임

주: ■ 7월 대비 표현이 달라진 부분, ■ 7월에는 없던 신규 추가 문단

자료: Fed, 현대차증권

〈표 3〉 7월 → 9월 성명문 주요 변화

1) 표결 결과: 9-3 → 12-0

7 월에는 3 명(해맥, 카시카리, 로건)이 0.25%p 인상을 주장하며 반대했던 반면, 9 월에는 정책금리를 3.50~3.75%에서 3.75~4.00%로 0.25%p 인상하며 만장일치(12-0)로 회귀함. 7 월 반대표 위원들의 견해가 9 월 회의에서 다수 견해로 수용된 것으로 해석됨

2) "conflict in the Middle East" → "geopolitical developments"

불확실성의 원인을 7 월에는 중동 분쟁으로 구체적으로 지목했으나, 9 월에는 지정학적 상황(geopolitical developments)이라는 보다 포괄적·모호한 표현으로 완화됨

3) "domestic spending has been resilient" 신규 추가

7 월에는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를 한 문장에서 동일하게 strong 으로 표현했으나, 9 월에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자본투자에는 robust(견실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

4) 생산성·자본투자 문구 분리 및 단어 교체 ("strong" → "robust")

7 월에는 생산성 증가와 자본투자를 한 문장에서 동일하게 strong 으로 표현했으나, 9 월에는 두 문장으로 분리하며 자본투자에는 robust(견실한)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함.

5) 인플레이션 문단 대폭 축소 + 신규 문장 추가

7 월의 "위원회의 2% 목표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를 포함한 특정 부문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공급 충격을 반영함"이라는 상세 설명이 9 월에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으로 대폭 축약되며 삭제됨. 대신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의 보다 신속한 복귀를 지지할 것임"이라는 문장이 새로 추가되어, 이번 금리인상을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과 명시적으로 연결짓는 표현으로 변경됨

자료: Fed, 현대차증권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표 4> 9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기자회견 주요 내용 요약

Q. 0.25%p 인상만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에너지 공급측 요인을 해결할 수 없는데, 이런 소폭 인상이 효과적인가?

A. 개별 가격(유가, 식료품 등)에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대가격 변화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2차·3차 파급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라는 입장

Q. 금리인상이 보통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번엔 다른 점이 있는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공급충격에 기인한다면 금리인상의 효과는?

A. 포워드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오늘 결정은 취임 후 110~120일간 준비해온 신중한 판단이며, 점도표로 각 위원 전망은 알 수 있으나 향후 정책경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 잭슨홀에서 약속한 '원칙에 기반한 판단'을 지속하겠다고 언급

Q. 시장이 오늘 인상 가능성을 90% 반영했는데, 이번이 시장 주도 인상이었나? 국제금리 상승도 그 요인 중 하나인가?

A. 금융시장과 연준 간 소통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나, 이번 결정은 고용·경기 여건에 대한 자체 판단에 근거했다는 입장. 시장가격은 참고 대상일 뿐 오늘 결정은 위원회 자체 판단이라고 강조

Q. 오늘 조치가 실제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메시지는?

A. 대통령과의 논의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 저소득층이 물가안정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현재 경제 여건상 물가안정에 집중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 오늘 조치는 기존에 예고해온 물가안정 달성 의지와 일치한다고 언급

Q. 7월 회의(동결)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 발표된 소매판매 지표가 수요 과열과 물가 상방압력을 시사하는지?

A. 개별 데이터 하나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7월 이후 7주간 확인된 세 가지 변화로 ①고용 등 광범위한 데이터로 확인된 경기 강세 ②당초 판단을 뒤집을 근거가 없었던 인플레이션 추세 ③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 변화를 제시하며, 이 세 요인이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

Q. 오늘 조치를 '완화적 조치의 일부 회수'로 표현했는데, 현재 금리 수준을 제약적(restrictive)이라고 보는지?

A. 현재 금융여건을 제약적이라 규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며, 위원들 다수도 같은 의견이라고 언급. 이번 조치는 금융·신용 여건을 목표에 더 부합하도록 완화 정도를 일부 되돌린 것이며, 향후에도 계속 평가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

Q. 대부분의 연준 인사들은 현재 금리를 '완만하게 제약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중립금리 대비 현재 수준은 어떻게 보는지? 단기·장기 중립금리 목표가 있는지?

A. 중립금리는 학술적으로 유용한 개념(빅셀적 균형금리)이지만 실제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

Q. 데이터 의존을 지양한다면서도 이번 회의를 앞두고 8월 CPI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것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소통 방식에 변화를 줄 계획은?

A. 특정 데이터 하나에 몰입하는 관행과는 거리를 두고 있으며, 추세가 중요하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 시장이 시간이 지나며 연준의 판단 기준을 스스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

Q. '취약계층'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미하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유가·식료품 가격 부담은 이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A. 취약계층은 주식·401K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인구(전체의 약 50% 미만)로, 임금소득에 의존한다는 설명.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달성하면 실질임금 상승으로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인플레이션 관리가 연준의 핵심 책무라고 강조

Q. 올해 ECB 등 타 중앙은행들이 연속 인상에 나선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A. 타 중앙은행의 결정을 미리 예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재확인. 최근 여러 국가 중앙은행 인사들과의 교류를 통해 각국도 물가 압력에 직면해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각국의 통화정책 결정이 상호 파급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

Q. 작년 가을 '경기가 너무 강해 금리인하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판단이 연준의 '6~7 번째 실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는데, 오늘 실제 인상을 단행하기까지 경제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나?

A. 취임 초기(110~120일 전)부터 경기 강세를 감지했으며 이후 데이터로 이런 판단이 확인됐다고 설명. 5년 반 넘게 지속된 물가안정 미달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완화 정도를 일부 되돌리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언급

Q. 최근 장기 국제금리가 상당폭 상승했는데, 이것이 성장 전망·중립금리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며 통화정책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A. 장기금리 상승 배경으로 ①경기 강세 ②자본조달 경쟁(하이퍼스케일러들의 대규모 자금조달 등 설비투자 급증) ③지정학적 리스크(에너지 등 현물가격과 정제마진 격차가 물가로 전이)의 세 가지를 제시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

Q. 잭슨홀에서 '명확하고 충분한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성명서는 '보다 신속한 목표 복귀'를 언급하면서도 SEP상 2% 달성 시점은 2029년으로 미뤄졌다. 이 두 메시지를 어떻게 조화시키나?

A. SEP 전망치는 본인이 아닌 위원 18명의 전망이라는 점을 전제. 6월엔 물가안정 달성 의지 재확인, 7월엔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는 메시지, 8월 잭슨홀에서는 원칙에 기반한 판단 의지를 표명했으며, 오늘 조치는 이런 의지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 단계라는 설명. 향후 정책 경로는 여전히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

Q. AI 업계 리더들의 '통제력 상실' 경고가 이어지는데, 이것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얼마나 우려하는지?

A. AI가 경제의 수요·공급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연내 관련 태스크포스를 통해 향후 정책적 함의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설명. 다만 AI 규제 관련 정책 판단은 정부의 다른 부처 소관이며, 연준은 그 여파가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겠다는 입장

Q. 인플레이션이 주로 에너지·관세발 공급충격에서 비롯됐다면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착된 한 금리인상 없이도 자연 해소될 수 있는데, 이번 인상으로 잠재성장을 이하로 성장을 눌러 고용시장에 의도치 않은 타격을 줄 필요가 있는지? AI발 성장 동력과는 어떻게 조화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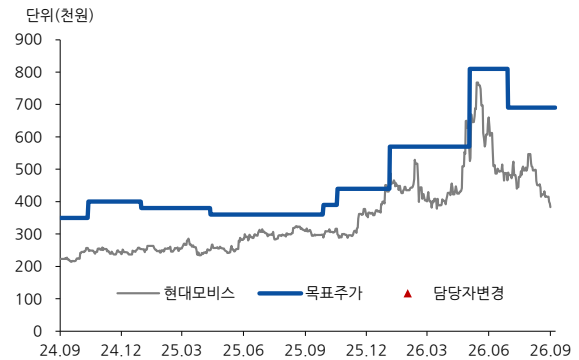
A. 현재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시장에 타격을 줄 필요는 없다는 입장.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책무가 중장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인식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물가안정이 결국 취약계층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으로 마무리

자료: Fed, 현대차증권

▶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추이

일 자	투자의견	목표주가	과리율(%)	
			평균	최고/최저
2024.03.25	BUY	350,000	-34.61	-24.43
2024.09.25	AFTER 6M	350,000	-33.89	-26.71
2024.10.28	BUY	400,000	-38.22	-35.38
2025.01.15	BUY	380,000	-33.23	-24.87
2025.04.28	BUY	360,000	-19.48	-9.86
2025.10.13	BUY	390,000	-21.24	-18.97
2025.11.03	BUY	440,000	-21.24	3.98
2026.01.20	BUY	570,000	-22.21	14.04
2026.05.19	BUY	810,000	-27.87	-5.19
2026.07.15	BUY	690,000	-32.30	-20.72
2026.09.17	BUY	690,000		

▶ 최근 2년간 현대모비스 주가 및 목표주가



▶ Compliance Notice

-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발행과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추천일 현대모비스와 관련하여 계열 회사의 관계에 있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당사의 애널리스트 장문수는 현대모비스의 탐방행사에 현대모비스의 비용으로 참석한 사실이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투자의견 분류

- ▶ 업종 투자의견 분류 현대차증권의 업종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업종 펀더멘탈과 업종주가의 전망을 의미함.
 - OVERWEIGHT : 업종 펀더멘탈의 개선과 함께 업종주가의 상승 기대
 - NEUTRAL : 업종 펀더멘탈상의 유의미한 변화가 예상되지 않음
 - UNDERWEIGHT : 업종 펀더멘탈의 악화와 함께 업종주가의 하락 기대

- ▶ 현대차증권의 종목투자의견은 3등급으로 구분되며 향후 6개월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상대수익률을 의미함.
 - BUY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상
 - MARKETPERFORM(M.PERFORM)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 ~ +15%P 이내
 - SELL : 추천일 증가대비 초과수익률 -15%P 이하

▶ 투자등급 통계 (2025.07.01~2026.06.30)

투자등급	건수	비율(%)
매수	189건	95.5%
보유	9건	4.5%
매도	0건	0%

- 본 조사항목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